

- 본문 : 누가복음 19장 11~27절
- 제목 :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내가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미’와 ‘아직’으로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된 나라가 아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확장되는 나라이며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전적인 의탁과 함께 진실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11)
* 누가복음 18:31~34
2.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므나의 비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라(12~27).
3.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므나’와 같은 것으로 무엇을 주셨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그 ‘한 므나’를 가지고 영적인 장사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5. 예수님께서 “한 므나의 비유”를 통해서 능력과 재능보다는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데, 당신은 영혼에 대한 간절한 자세를 지녔다고 생각하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올바른 제자도는 무엇보다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분과 그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그것을 위해 성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새생명축제를 한 주간 앞에 두고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의 가사에 순종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의 끝에서 만나게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한 영혼을 당신은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요청하실 것 같은가?

· 말씀기도제목

1.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와 “믿음”으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장사”를 잘 감당하여 “착한 종”이라 칭찬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2.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한 영혼”에 대해 결코 게으름과 포기를 용납하지 않는 “올바른 제자도”로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할 때 “진리 등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